

새로 나온 시집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김광규 지음

작가(한양대 독문과 교수)의 일곱번째 시집. 1994년 여름부터 1998년 이른 봄까지 발표한 작품 77편을 수록했다. 시간이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시집의 기조를 이룬다. (338-7222)

문학과학사/B6변형/134면/5000원

집은 아직 따뜻하다

이상국 지음

《우리는 읊으로 간다》 이후 6년만에 펴내는 이상국 시인의 네번째 시집. 우리들이 의지하고 함께 보듬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인의 애뜻한 마음이 전편에 흐른다. (718-0541)

창작과비평사/B6변형/102면/5000원

나는 부리 세운 딱따구리였다

백창일 지음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지닌 백창일 시인의 첫번째 시집. 그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산벚꽃과 봄날의 이미지는 '5월 광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 (322-2161)

실천문학사/B변형/134면/5000원

어머니, 당신이 있기에 절망도 희망입니다

김양수 지음

구제금융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시적 대응. 어머니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을 빌려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함을 대변했다. 시인은 KBS보도국의 출판·문학 담당기자. (364-7871)

푸른숲/B6/138면/5000원

하늘뜨락

임승빈 지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애환에 초점을 맞춘 연작시집. 장애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 꿈과 희망이 뻗어내려 있다. 임승빈 시인(청주대 국문과 교수) 역시 정신지체가 딸을 둔 장애인 가족이다. (702-1800)

문학세계사/B6변형/114면/4800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화 지음

20여년간 명상 서적을 주로 번역한 류시

화씨의 애송시모음. 인디언·수녀·랍비·결핵·에이즈 감염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고백록을 두루 엮은 잠언시집. (733-5045)

열림원/B6변형/136면/5000원

삶은 모든 것을 버리라 한다

재연 지음

인도 푸나 대학 산스크리트어과의 석사과정 교재로 쓰였던 '수바시따' 선집을 우리말로 옮겼다. '수바시따'는 기발하거나 멋진 격언·경구·시 같은 것을 가리킨다. (324-7764)

거리문학제/B6변형/128면/5500원

사람아 사랑아

이인원 지음

시간과 사랑을 중심 테마로 한 작품들이 40대 중반 여류시인의 관조적인 인생관을 보여준다. 특히 제2부에는 사랑에 대한 예찬과 의심, 실연과 이별에 대한 슬픔 상념이 뒤섞여 있다. (733-7451)

고려원/B6변형/96면/4500원

우울한 시대의 사랑에게

박현수 지음

1992년 한국일보 신춘문제로 등단한 박현수 시인의 첫번째 시집. 등단작 <세한도>는 '나보다 더 보폭이 큰 영혼'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의 고고함을 노래했다. (719-1827)

청년정신/B6변형/118면/4000원

언 강물에 발을 녹인다

문경화 지음

"이쁜 여류시와 급진적인 여성시 사이에 묘한 등지"를 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1996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문단에 나온 문경화 시인의 첫시집. (318-4041)

삶과꿈/B6변형/142면/4000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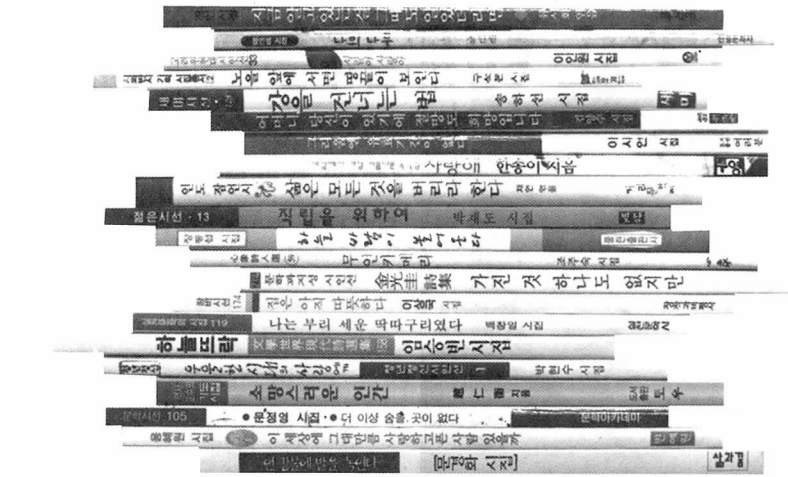
문정영 지음

1997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한 이래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정영 시인의 처녀시집. 시인과 세계와의 간극을 초극하려는 아름다운 꿈을 노래했다. (764-5057)

문학아카데미/B6변형/116면/5000원

노을 앞에 서면 땅끝이 보인다

구석본 지음



첫시집 《지상의 그리운 섬》으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던 구석본 시인의 두번째 시집. 언뜻 전통서정시로 보이지만, 투사 (projection) 기법을 활용한 어두운 욕망의 표출도 드러난다. (053-654-0027)

시와반시사/B6변형/98면/5000원

무인카메라

조주숙 지음

시전문지 《심상》 통해 등단한 평범한 주부의 첫시집. 화려한 장식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언어의 조탁에 대한 고뇌가 시집 전체에 배어 있다. (3476-5227)

심상/B6변형/112면/5000원

직립을 위하여

박재도 지음

수록 작품은 대체로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형상력이 뛰어나다. 유년의 경험에서 시적 소재를 얻은 작품이 많다. <보리> <뒷동산> <산수유꽃> <상처달래기> 등은 유년의 추억을 감각적 이미지로 잘 소화했다. (051-246-3436)

빛남/B6변형/138면/5000원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 있을까

용혜원 지음

베스트셀러를 여러권 갖고 있는 용혜원씨의 서른번째 시집이자 예순권째 저서. 시를 쓰는 것을 삶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는 작업으로 생각하는 시인의 생각이 적극 반영돼 있다. (362-6912)

민예원/A5변형/136면/50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삭임 - 사랑해

한송이 지음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쓴 시를 모았다. 사랑에 관한 시는 여운이 길게 남고, 이별을 노래하는 시는 강렬하다. 꽃·비·안개를 소재로했다. (371-1667)

투명미디어/B6/108면/3500원

강을 건너는 법

송하선 지음

우석대 송하선 교수가 이순을 맞아 그 동안 발표한 시 작품을 간추려 펴낸 선집.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노래한 시편들은 건강한 삶의 태도를 지녔다. (2937-949)

새미/B6/154면/5000원

그리움엔 유효기간이 없다

이시연 지음

'그리움' 연작 18편을 비롯한 작품 71편을 수록했다. 대화체의 단시형으로 사람의 보편적 정감인 그리움을 설득력 있게 표출했다. (247-3121)

여러분/B6변형/112면/4500원

나의 나무

정인범 지음

삶에 대한 각성을 노래했다.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얻은 목마름의 성찰은 사랑스러운 처자식과 함께 밝은 미래를 기억하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928-3285)

선일문화사/B6변형/110면/4500원

하늘 바람이 불어온다

장동섭 지음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섭 목사의 신앙시집. 영혼을 일깨우는 언어를 통해 바른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65편 수록. (745-1007)

쿠팡출판사/B6변형/152면/5000원

소망스러운 인간

조인형 지음

조인형 교수(강원대 역사교육과)의 기도시집. 바람직한 인간상의 구현을 위한 염원을 담았다. 저자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마다 썼던 기도문 모음. (274-4312)

토우/B6변형/188면/4500원